

# 승승장구 KIA 뒤편 2군의 땀 있었네



### 김종국·이재주 등 1군 복귀 호시탐탐 보이지 않는 주전 경쟁에 팀 승리 효과 “올해 가을잔치 가자”... 선수들 맹훈련

보이지 않는 경쟁이 가을잔치를 향한 KIA의 여름을 달군다. 선두다툼 중인 KIA 1군 선수단이 LG와의 원정경기를 위해 자리를 비운 4일, 무등경기장 야구장 덕아웃에 2군 선수단이 두산과의 경기를 위해 짐을 풀었다. 투키 정성철이 이성우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이날 신종길과 김종국이 테이볼 세터를 구성했고, 최경환·이재주·이호신이 클린업 트리오에 이름을 올렸다. 6번타자로 나선 최영규는 유격수 자리를 지켰다. 선발 라인업 중 8명은 올 시즌 1군에서 뛰

었던 선수들이다. 6일부터 구원등판해 홀드를 기록한 진민호도 올 시즌 1군 무대에서 1승을 거뒀고, 역시 홀드를 기록한 김명수도 1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던 선수다. 지난해에 비해 한층 두터워진 선수층을 엿볼 수 있는 라인업이다. 올 시즌 누구도 방심할 수 없는 ‘진짜 경쟁’이 전개되면서 KIA 덕아웃은 전성기가 됐다. 자리를 지키려는 1군과 언제든 그라운드로 달려나갈 수 있는 2군의 소리없는 주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1군이 삼삼과의 홈경기에서 연

승가득을 달리며 1위까지 치고 오르는 동안 주말 경기가 없던 2군은 함평으로 가 더위로 잊은 채 맹훈련을 했다. 지난 일요일 무등경기장은 1위 등극으로 잔치 분위기가 됐지만 이를 지켜보는 2군 선수들의 심경은 편치않은 않았다. 기쁨의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었던 대다, 1군의 빈틈없는 행보가 계속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1군의 승전보가 이어지면서 2군 선수들에게는 공 하나하나가 더 절실했다. 1군 무대를 향한 김종국과 이범석의 간절함은 더욱 크다. 팀이 9번째 우승을 하던 1997년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투런포를 쏘아올렸던 김종국은 한참 어린 후배 안치홍에게 자리를 내주고 2군에서 아쉬움을 감수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장염에 걸려 5kg나 체중이 줄었다. 하지만 김종국은 오랜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팀의 첫 득점을 올리며 1군 복귀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난달 미국에서 어깨수술을 받았던 이범석도 4일 수술 후 처음으로 경기장에 나왔다. 아직 통증 때문에 수술 받은 오른쪽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고, 체중도 부족 줄었다. 지난해 총알투를 앞세워 KIA 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했던 이범석은 가을잔치를 향해 순환중인 팀의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속이 탄다. 이날 KIA 2군 선수단은 팬들로부터 간식 보따리를 선물 받았다. KIA 팬들이 심시일 반 모은 돈으로 장만한 간식 선물이었다. 간식전달을 위해 대표로 경기장을 찾은 10여명의 팬은 뜨거운 응원까지 펼쳐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2군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9월 1일부터 엔트리 확대되면서 5명의 선수가 1군에 오를 수 있다. KIA 1군의 신바람에 2군 덕아웃이 더욱 뜨거워지는 이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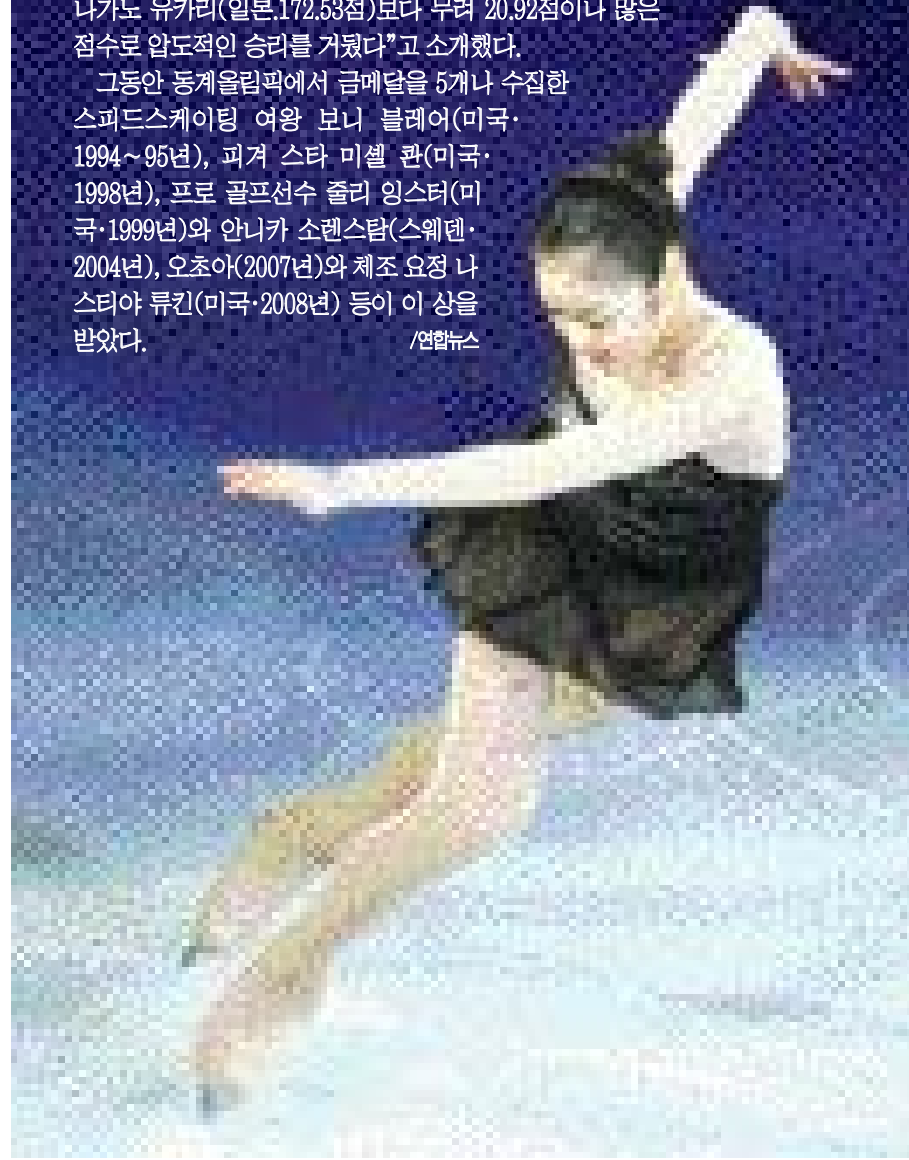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의 뜨거운 자리 경쟁이 1위 신바람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일 오후 무등경기장이야구장에서 열린 KIA와 두산의 2군경기에서 2번타자로 나선 KIA 김종국이 공격을 하고 있다.

## ‘피겨여왕’ 김연아

### 올해의 스포츠 우먼 후보에

‘피겨여왕’ 김연아(19·고려대)가 ‘여성스포츠재단’이 제정한 올해의 스포츠우먼 후보에 올랐다. ‘여성스포츠재단’은 최근 홈페이지(http://www.womenssportsfoundation.org)에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성적을 바탕으로 김연아를 비롯한 10명의 후보를 올려놓고 투표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0월14일 발표된다. 김연아는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후보로 뽑혀 호주의 서퍼 스테파니 길모어, 올해 호주오픈테니스에서 우승한 서리나 윌리엄스(미국), ‘골프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 자메이카 단거리 육상 스타 케렌 스투어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여성스포츠재단’은 김연아에 대해 “현재 피겨스케이팅 세계랭킹 1위로 지난해 10월 ‘스케이팅 아메리카’ 대회에서 193.45점을 획득, 2위 나가노 유키리(일본,172.53점)보다 무려 20.92점이나 많은 점수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5개나 수집한 스피드스케이팅 여왕 보니 블레어(미국·1994~95년), 피겨 스타 미셸 콰인(미국·1998년), 프로 골프선수 줄리 잉스터(미국·1999년)와 안나카 소렌스탐(스웨덴·2004년), 오초아(2007년)와 체코 요정 나스티야 류킨(미국·2008년)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 KIA 팬들의 ‘특별한 선물’

### 조범현 감독에 모시옷 전달

KIA 타이거즈 조범현 감독이 팬들로부터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7년만의 팀 1위를 지휘한 조 감독이 4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와의 원정경기에서 앞서 팬들로부터 모시옷을 전달 받았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KIA 팬들이 모시옷 한 벌과 함께 빨간색

모시 조끼에 호랑이 자수를 놓아 조 감독에게 선물한 것이다. 모시옷 선물을 기뻐한 감독은 2군 경기가 열린 광주에는 간식 선물을 전달해 무등경기장과 잠실구장의 KIA 덕아웃에 웃음을 선사했다. 또 이날 2군 김지훈배터리 코치가 득너까지 하면서 ‘잘나가는 집안’ KIA에 합박 웃음이 터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이승엽 또 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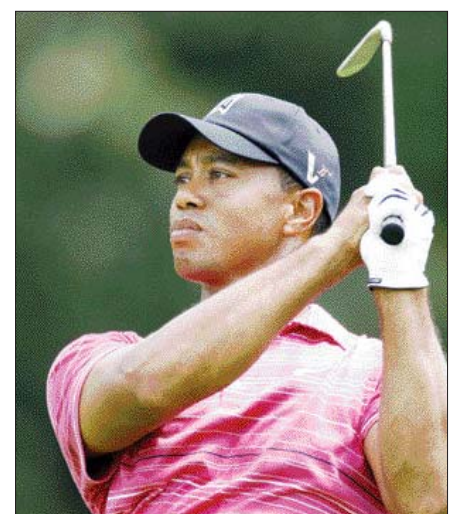
### 외야수 다카하시 1루 활용 가능성

올 시즌 심각한 부진과 부상에 시달려 다시 2군에 내려간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또 악재를 만났다. 이승엽의 수비 포지션인 1루에 강타자인 외야수 다카하시 요시노부(34)가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4일 인터넷판에서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이 허리 통증 때문에 2군에 머물고 있는 다카하시를 장차 1루수와 외야수로 함께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카하시의 1루수 수비 훈련을 병행하며 이날 중 1군에 복귀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다카하시가 1루수 글러브를 꺼내 되면 이승엽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라 감독은 올해 부진한 이승엽을 대신해 오가사와라 미치히로, 가메이 요시유키 등 여러 선수를 1루수로 기용해왔다. 이승엽은 최근 허리 통증이 재발해 1군 복귀 여섯 만인 3일 2군으로 다시 내려갔다. 요미우리에는 현재 알렉스 라미레스, 다니 요시토모, 마쓰모토 데쓰야, 가메이 요시유키, 구도 다카히토 등 외야수 자원이 풍부하다. 1998년 데뷔한 다카하시는 7차례나 골든 글러브를 수상하며 요미우리의 간판 타자로 활약했다. 통산 264홈런에 타율 0.299를 때렸으나 올해는 부상 때문에 1군 무대에서 서지 못했다. /연합뉴스

## ‘황제’ 우즈 70승 도전

### WGC 브리지스톤 6일 개막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특급대회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서 통산 70승에 도전한다.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 브리티시오픈에서 컷 탈락했던 수모를 부익오픈 우승으로 만회한 우즈는 올 시즌 4승을 포함해 통산 69승을 올렸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승수 29위인 잭 니클라우스(미국)의 73승에 4승 차로 따라붙은 우즈가 올해 안에 니클라우스를 추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해 무릎 수술을 받고 한동안 대회를 나오지 않았던 우즈는 올 시즌에도 황제의 위용을 잃지 않은데다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애크런의 파이어스톤 골프장(파 70.7천400야드)에서 개막하는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에서는 우즈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대회다. 1999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우즈는 모두 여섯차례나 우승했고 한번도 4위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다. 1999년부터 3년 연속 우승,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또 3년 연속 우승한 우즈는 지난 해는 무릎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고 비제이 싱(피지)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가 우즈의 독주를 견제할 선수로 꼽힌다. 웨스트우드는 유럽에서 열린 지난 3차례 대회에서 모두 톱10 안에 드는 상승세를 타고 있고 작년 브리지스톤 대회에서는 준우



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혼다클래식에서 우승한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2007년 참가 이후 2년만에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최경주(39·나이키골프)도 출전해 부진 탈출을 노린다. 지난 다섯 차례 대회에서 2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재미교포 엔서니 김(24·나이키골프)도 시즌 첫 우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뉴질랜드 교포 이민병(19)이 특급 대회에서 실력을 뽐낼 기회를 잡았고 지난 2월 유럽-아시아투어 메이뱅크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한 재미교포 엔서니 김(37)도 출전한다. 한편 같은 기간 미국 네바다주 리노에서는 리노-타호 오픈이 열려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 등이 나간다. /연합뉴스

## 美 사격연맹, 진중오 선수에 러브콜

### 美대표과 합동훈련 제안

남자 공기권총 10m와 50m 종목 세계 1인자인 진중오(30·KT)의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한사격연맹과 소속팀인 KT에 따르면 미국 사격연맹은 내달 진중오가 미국 사격대표팀과 함께 훈련하고 미국에서 열리는 사격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왔다. 체류 기간은 약 한 달로 경비는 모두 미국 사격연맹이 부담한다는 조건이었다. 이미 지난 4월 창원에서 열린 월드컵사격대회 직후 구두로 전달했던 초청 의사를 이번에는 문서로 보내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당시 미국 사격대표팀 감독은 2008 베이징올림픽 50m 권총 금메달리스트인 진중오가 월드컵 10m 공기권총 본선에서 세계신기록인 594점을 쏘아 이 부문 기록을 20년만에 갈아치우는 등 최고의 기량을 선보이자 대한사격연맹과 KT에 “미국에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진중오는 5월 뮌헨에서 열린 월드컵사격 대회에서 10m에서 금메달을 따내면서 이 부문에서도 세계 랭킹 1위에 올라 자신의 주 종목인 50m에 이어 두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오르는 발군의 실력을 뽐내 미국 사격연맹의 초청 의지가 더 강해진 셈이다. 현재 세계 사격선수 중 두 종목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선수는 진중오가 유일하다. /연합뉴스

